

“시청 캠핑장서 소중한 추억 만들었어요”

올 여름 4500명 이상
돛자리 등 제공·각종 공연도
광주 문화명소 자리매김

“집이 가까운 광주시청 잔디밭에서 가족과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유명 관광지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름철 광주지역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한 광주시청 잔디광장 여름가족문화캠핑에 올 여름 51일간 45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5일 “지난 6월26일부터 8월 15일까지 51일간 잔디광장 여름가족문화캠핑을 찾은 이용자 수를 집계한 결과 4500여명으로 지난해 1998명보다 크게 증가하며 여름문화캠핑가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캠핑 개최일과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됐다.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청사를 표방한 광주시는 2015년(10일간), 2016년(20일간)에는 주말과 8월 성수기에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51일 동안 매일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해먹, 그네, 랜턴, 돛자리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통기타 등 공연과 마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광주시청 잔디광장 여름가족문화캠핑 모습. <광주시 제공>

술 등 문화공연은 지난해 6회에서 올해는 9회로 확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장애인체육가족캠핑’도 마련, 80여 명이 참가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올해로 3회째인 광주시청 잔디광장 여름가족문화캠핑은 겨울철 스케이트장과 더불어 광주지역의 으뜸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열린 청사, 열린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구-전남대 ‘사회적경제 창업 방법’ 청년 교육

9월1일까지 수강자 모집

광주시 북구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과 연계,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7 청년 사회적경제 배움터’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2017 청년 사회적경제 배움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조직 진입을 위한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음달 6일 ‘사회적경제 개념 및 사례’ 강의를 시작으로 13일과 20일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창업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 창업 구체화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27일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방문 및 기업

가 대상으로 교육은 마무리되며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심화교육과 함께 예비마을기업·소셜벤처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각종 공모사업 안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www.bukguse.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

료이다.

한편 북구는 오는 22일부터 올해말까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학교’를 운영한다.

3개 중학교(금호중·경신·문산) 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가치와 필요성 등에 대한 기초교육, 힐링워크숍, 네이팅, 문화해설사 등 관련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등 심화교육을 운영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주민세, 고지서 없어도 모든 ATM서 낼 수 있어

광주시는 15일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를 대상으로 올해 균등분 주민세 60만5736건 11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9만375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세대주)은 53만5491건에 53억5200만원, 개인사업자는 4만3155건에 32

억3500만원, 법인사업자는 2만7090건 26억5000만원이다.

자치구별로 광산구가 30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0억7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세대수가 늘고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장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4억4500만원(4.1%) 늘었다.

주민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동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10월31일까지 진행

광주시 동구가 주민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한다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체계적 보건사업을 계획·수립하는 통계로 쓰이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사는 동구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통계전문가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 전자조사표(CAPI)가 탑재된 노트북으로 묻고 답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건강생활습관(흡연·음주·운동 및 신체활동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유병률 ▲의료이용 ▲정신건강 등 모두 18개 영역 221개 문항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양심적 일본인들 광주 명예시민 된다

근로정신대 10년간 소송 지원 ‘나고야 모임’ 위촉 추진

광주시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도운 일본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을 광주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6명과 도난카이(東南海) 대지진으로 숨진 피해자 가족 2명 등 원고 8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던 10여년 전부터 이들의 일본 현지 소송을 도왔다.

광주시는 15일 “시의회와 함께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소송지원회 대표 등 모임 회원들을 광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

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도 하기 힘든 일들을 일본 현지인들이 해주고 있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는 못이 답했다”며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나고야 소송 지원회를 꾸려 지난 10년에 걸친 재판 동안 일본을 오가는 원고들의 항공료와 체류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변호사들도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무료 변론을 펼쳤다.

지난해 ‘근로정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발간한 ‘법정에 새긴 진실’ 책자에 이들의 활동상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3일 독도를 찾은 탈북민사랑나눔운동본부 회원과 탈북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탈북민사랑나눔운동본부 제공>

광주 거주 탈북민들 광복절 독도 방문

탈북민사랑운동본부 주최

사단법인 탈북민사랑나눔운동본부는 15일 광복 72주년을 맞아 광주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함께 독도 방문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과 운동본부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원 코리아 원정대’ 40여명이 참여했다.

탈북민사랑나눔운동본부 김치곤 이사는 “독도를 찾는 발걸음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겐 남과 북이 더불어 살

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정대에 참가한 탈북민 송정실씨는 “독도 방문이 탈북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시간이 됐다”며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물론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코리아 원정대는 2018년에 국토 서쪽 끝인 백령도를, 2019년에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광복 75주년인 2020년에 백두산을 찾는 4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